



2026
04.30
주간 제 471호

중국 창업

WEEKLY 뉴스
CHINA 창업
KIC 뉴스

글로벌혁신센터 (KIC 중국)

문의 | +86.10.6780.8840 | info@kicchina.org

WEEKLY 뉴스

토큰, AI 시대 비즈니스 생태계 재편	1
중국 최초의 '바이오의료 중대 규정' 시행 임박, 업계 판도 바뀌나	2
2026 글로벌 6G 기술·산업 생태계 대회 개막	4

CHINA 창업

[산업분석] 피지컬 AI 2026년 2Q: 산업 현장을 넘어 전 영역 가치 창출 시대로	7
[산업분석] 6분 충전으로 1,500km 주행, CATL의 6대 혁신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한계 돌파	14
[기업분석] 피지컬 AI 로봇 관련 기업-메크마인드(梅卡曼德)	20
[지역분석] 랴오닝성 번시시 하이테크산업구	23

KIC 뉴스

2026년 난징 한-중 헬스케어 & 바이오환경 산업기술 협력 컨퍼런스 모집 공고	26
2026 WAIC 세계인공지능대회 모집 공고	29

행사 정보

중국 과학기술 분야 행사 정보	30
------------------	----

WEEKLY 뉴스



토큰, AI 시대 비즈니스 생태계 재편	1
중국 최초의 '바이오의료 중대 규정' 시행 임박, 업계 판도 바뀌나	2
2026 글로벌 6G 기술·산업 생태계 대회 개막	4



토큰, AI 시대 비즈니스 생태계 재편

중국 국가데이터국(国家数据局)은 최근 토큰(Token)에 대한 공식 중국어 명칭을 '츠위안(词元)'으로 확정하고, 이를 기술 공급과 시장 수요를 연결하는 정산 기준 단위로 규정했다.

토큰은 대형언어모델이 정보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최소 단위다. 한 글자, 단어, 문장부호 하나까지 모두 하나의 토큰이 될 수 있다.

최근 국무원 신문판공실 브리핑에서 류례홍(刘烈宏) 국가데이터국 국장은 올해 3 월 기준 중국의 일평균 토큰 호출량이 140 조 개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2024 년 초 1,000 억 개와 비교하면 1,000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25 년 말 100 조 개 에서 불과 3 개월 만에 40% 이상 증가한 규모이기도 하다.

토큰 사용량의 가파른 증가는 중국 AI 산업이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활용 분야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산업 경쟁력도 크게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AI 에이전트의 확산으로 토큰이 지닌 경제적 가치도 보다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토큰 사용량, 단위 생산성, 비용 관리 능력은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정밀화 운영 수준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토큰 호출 수요는 인터넷, 전자 기기, 금융, 신유통,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 집중돼 있다. 사이디(赛迪) 컨설팅의 바이룬쉬안(白润轩) 연구원은 앞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딥리서치, 개인형 AI 비서 등이 토큰 수요 확대의 주요 성장 분야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토큰 경제가 데이터 요소의 가치 창출 방식을 재편하고, AI 산업의 비즈니스 생태계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API 통합 플랫폼 오픈라우터(OpenRouter)에 따르면, 4 월 6 일부터 12 일까지 전 세계 AI 대형모델 총 호출량은 21 조 토큰에 달했다. 호출량 상위 5 개 모델 가운데 3 개는 중국 AI 대형모델이었으며, 이 중 알리바바(Alibaba)의 Qwen3.6-Plus 가 주간 호출량 1 조 6,600 억 토큰으로 1 위를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중국 AI 대형모델의 주간 호출량이 6 주 연속 미국을 앞질렀다는 점이다.

저우홍이(周鸿祎) 360 그룹 회장은 글로벌 개발자들이 중국 대형모델을 선호하는 이유로 가격 대비 성능 경쟁력을 꼽았다.중미 모델 간 성능 격차가 사실상 3 개월 이내 수준으로 좁혀졌으며, 중국 모델 가격은 해외 선두권 모델의 10 분의 1 수준, 일부는 그보다 더 낮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저비

용 경쟁력은 오픈소스 생태계가 빠르게 자리 잡은 데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 대형모델은 안드로이드와 유사한 보급형 성장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다.

현재 글로벌 AI 경쟁의 초점은 기술 성능 자체가 아니라 실제 활용 역량에 맞춰지고 있다. 중국은 초대형 내수시장과 높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급증하는 연산 수요와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일시적인 불균형도 나타나고 있다. 사이디(赛迪) 컨설팅의 바이룬쉬안(白润轩) 연구원은 주요 과제로 두 가지를 꼽았다. 첫째, 첨단 AI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고 해외 GPU 공급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둘째, 고품질 데이터셋 구축 역시 아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동시에 토큰 거래와 AI 과금 체계가 온라인화되면서 데이터, 접근권한, 자금이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고, 이에 따른 보안 위험도 커지고 있다. 치상둥(齐向东) 치안신(奇安信) 그룹 회장은 해커들이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거나 프롬프트 인젝션 등을 통해 토큰을 탈취한 뒤 데이터에 불법 접근하거나 계정 사용 한도를 도용하고, 각종 사기 범죄까지 저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우 데이터 유출은 물론 금전 피해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고품질 데이터 공급 확대와, 토큰 거래·가격 산정 기준 마련 등 핵심 과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컴퓨팅 자원을 물과 전기처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로 구축해, 토큰 경제가 '인공지능+' 정책을 지원하는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출처: 신화망)

중국 최초의 '바이오의료 중대 규정' 시행 임박, 업계 판도 바뀌나

중국 최초로 바이오의료 신기술의 임상연구와 임상 전환 적용을 별도로 다룬 행정법규인 <바이오의료 신기술 임상연구 및 임상 전환 적용 관리조례(生物医学新技术临床研究和临床转化应用管理条例)>가 오는 5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세포치료와 유전자치료 등 바이오의료 신기술의 현장 적용 절차를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명시했다고 평가된다.

이번 <조례>의 가장 큰 제도 변화 중 하나는 바이오의료 신기술 임상연구 관리 방식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 점이다. 덩용(邓勇) 베이징중의약대 인문학원 법학과 교수는 등록제가 규제 완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진입은 엄격하고 사후 관리는 느슨한' 기존 방식에서, '진입 문턱은 낮추되 사후 심사와 전체 관리감독은 대폭 강화하는' 체계로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 심사 문턱도 대폭 높아졌다. 비임상 단계에서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은 물론, 엄격한 윤리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연구 전 과정에 걸쳐 상시 위험 관리 체계를 가동해야 하며, 규정 위반 시에는 최대 1,000 만 위안에 달하는 고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외에도 업계 활동 제한이나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이 병과된다.

기업이 임상연구를 주도적으로 발의할 수 있는 주체라는 점도 처음으로 명시됐다. 이에 따라 기업은 연구 설계를 주도하고, 임상 가치와 산업화를 목표로 3 갑 병원(상급종합병원), 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산학연 의료 연합체를 꾸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지적돼 온 '기업은 기술을 보유하고 병원은 임상 역량을 갖췄지만, 이를 사업화로 연결할 주체가 부족하다'는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승인을 거쳐 임상 전환 적용이 허가된 바이오의료 신기술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임상 적용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정보는 중국 국무원 위생건강 주관 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기술 개발부터 임상 적용에 이르는 전 주기 전환 절차가 이번 <조례>를 통해 처음으로 정리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 리스크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신고·등록과 참여 기관 리스트를 공개로, 정보 비대칭에 따른 기업의 의사결정 부담이 줄어들었으며, 승인 이후 비용 청구와 데이터 보호 관련 기준도 구체화되면서, 사업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주목할 점은 임상연구 수행 기관을 3 급 갑등(甲等) 의료기관으로 한정했다는 점이다. 또한 학술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위급 연구 인력과 품질관리 체계, 안정적인 재원도 갖추도록 했다.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GCP(의약품 임상시험 품질관리 기준) 경험과 특정 기술 플랫폼 품을 갖춘 대형 병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병원의 역량 강화를 촉진해 우수 의료자원의 구조적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제도 정비를 통해 산업 전반의 고도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덩용 교수는 "의료기관은 윤리, 학술 심사 체계를 서둘러 정비하고, 연구 전 과정의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 역시 자격 요건을 신속히 점검하고, 병원과의 협력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기술 전환의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커지르보)

2026 글로벌 6G 기술·산업 생태계 대회 개막

4월 21일, 2026 글로벌 6G 기술·산업 생태계 대회(2026 全球 6G 技术与产业生态大会)가 중국 장쑤성(江苏省) 난징(南京)에서 막을 올렸다.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6G가 기술 방향성이 점차 뚜렷해지고, 핵심 활용 분야도 구체화되면서 본격적인 발전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2030년 전후 6G 상용화가 본격화되면, 수조 위안 규모의 새로운 산업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쑤여우홍(孫友宏) 중국공정원 원사이자 동남대 총장은 "6G는 인공지능(AI), 집적회로(IC), 연산 네트워크, 공중·우주·지상·해양을 아우르는 통합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심층 융합 플랫폼일 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 경쟁의 전략적 고지를 선점하고 신질 생산력을 육성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세대 핵심 정보 인프라로 꼽히는 6G는 통신, 센싱, 컴퓨팅, 지능, 보안을 융합한 네트워크로 발전할 전망이다. 하늘, 우주, 지상, 해양을 연결하는 전방위 지능형 연결망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왕쑹(王嵩) 중국 과학기술부 부국장은 "지금부터 6G 표준 제정, 핵심 기술 돌파, 산업 생태계 구축의 결정적 시기"라며 "6G는 시스템이 방대하고 연구개발 난도가 높은 만큼 글로벌 협력과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테라헤르츠 통신, 통신·감지 일체화, 위성·지상 통합 네트워크 등 첨단 분야에 집중해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기초 연구와 원천 기술 혁신을 확대해 핵심 기술 병목을 돌파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기술 장벽을 배제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해 호환성과 포용성을 갖춘 6G 표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6G 표준화 역시 이상적인 성능 지표 경쟁에서 벗어나, 상용화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우허취안(邬贺铨) 중국 공정원 원사는 6G의 대역폭 증가는 5G에 비해 크지 않지만, 지연시간, 신뢰성, 에너지 효율, 보안성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네트워크는 단순 연결망을 넘어, AI 기능이 기본 탑재된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에이전트 인터넷'을 6G 표준화의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하며, 핵심망 역시 다중 에이전트 환경에 맞춰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우샤오후(尤肖虎) 중국과학원 원사이자 쑤진산(紫金山) 연구소 주임은 6G 가 단순히 최고 수준의 연결 성능만 추구하는 기술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더 중요한 과제는 데이터, 정보, 운영기술을 융합해 통신, 센싱, 컴퓨팅, 제어 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발전시키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여우샤오후 주임은 5G 가 산업 현장 등에서 '연결은 가능하지만 제어 기술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려면 네트워크 내부 데이터가 직접 작동하는 새로운 구조를 구축하고, 지식그래프와 데이터 평면을 결합해 실시간 지능형 서비스와 성능 보장형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막식에서 중국의 첫 번째 초기 6 세대(6G) 이동통신 기술 시험용 네트워크(Pre-6G 시험망)가 개막식에서 공식 가동을 선언되었다.

여우샤오후 주임은 "이 시험망은 6G 혁신 기술을 5G 네트워크에 선제적으로 적용해 구성한 것으로, 고대역폭, 장거리 커버리지, 저지연·확정성, AI 내재화 등의 특징을 갖추고 있으며, 성능은 5G 대비 최대 10 배 수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험망은 저고도 순찰, 산업 제조, 홀로그램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인 검증을 진행 중이다.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 산업 현장 적용이 빨라지면서, 6G 는 중국식 현대화를 뒷받침하는 핵심 디지털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출처: 중귀커지망)

참고자료

- ◆ 신화망(新华网). 토큰, AI 시대 비즈니스 생태계를 재편하다
<http://www.news.cn/tech/20260420/58787699c6bf4610842a2476c0ee2e1a/c.html>
- ◆ 커지르보(科技日报). 중국 최초의 '바이오의료 중대 규정' 시행 임박, 업계 판도 바뀌나
<https://mp.weixin.qq.com/s/SkNV0ocl55KuiUk11gIH5A>
- ◆ 중귀커지망(中国科技网). 6G 는 통신, 센싱, 컴퓨팅, 지능, 보안을 융합한 네트워크로 발전할 전망-2026 글로벌 6G 기술·산업 생태계 대회 개막
https://www.stdaily.com/web/gdxw/2026-04/22/content_505897.html

CHINA 창업



[산업분석] 피지컬 AI 2026년 2Q: 산업 현장을 넘어 전 영역 가치 창출 시대로	7
[산업분석] 6분 충전으로 1,500km 주행, CATL의 6대 혁신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한계 돌파	14
[기업분석] 피지컬 AI 로봇 관련 기업-메크마인드(梅卡曼德)	20
[지역분석] 랴오닝성 번시시 하이테크산업구	23



[산업분석] 피지컬 AI 2026년 2Q: 산업 현장을 넘어 전 영역 가치 창출 시대로

기술 융합 심화: BCI 접목, 다중 기술 접근법 동시 진전

2026년 2분기 피지컬 AI 기술은 '대뇌형-소뇌형-엔드투엔드' 접근법에 분야 간 기술 융합이 더해지는 고도화 단계에 들어섰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양자컴퓨팅, 엣지컴퓨팅 등 첨단 기술이 피지컬 AI 와 결합하면서 기존 기술의 한계를 넘어설 새로운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 완성도와 실제 현장 적용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 가운데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는 산업 기술 고도화의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인간-기계 상호작용의 한계를 낮추고, 사람과 로봇의 협업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적용 분야도 의료 재활을 넘어 산업 자동화와 특수 작업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다양한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의 작업 능력을 끌어올리는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으며, 뇌과학과 지능형 로봇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 고리로 자리 잡고 있다.

기반 기술 분야에서는 '대뇌형, 소뇌형, 엔드투엔드' 3 대 접근법이 융합 과정에서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주요 성능 지표도 크게 개선되며, 다양한 활용 현장에 적용하기도 한층 유리해졌다.

■ 대뇌형 접근법

임바디드 인텔리전스 기업인 스피리트 AI (千寻智能·Spirit AI)은 범용 피지컬 AI 대형모델 Spirit v2.0 을 공개했다. 변수가 많은 실제 환경에서의 작업 인식 정확도는 92.5%로 이전 버전보다 8%p 높아졌고, 추론 연산 수요는 60% 줄었다. 이에 따라 산업용 로봇 단말기에도 적용이 가능해졌다. 갈봇(银河通用·Galbot)은 시뮬레이션 데이터 기반 VLA 모델에 리테일, 의료 분야의 멀티모달 데이터를 결합해 훈련을 진행했다. 이를 적용한 무인 약국 로봇의 자동 응대 성공률은 98% 이상에 달한다.

■ 소뇌형 접근법

유니트리 (宇树科技·Unitree)는 휴머노이드 로봇 Unitree R2 를 출시했다. 가격은 3만 9,900 위안을 유지했고, 운동 제어 정밀도를 0.01mm 까지 끌어올렸다. 계단 오르내리기와 장애물 통과 등 복잡한 지형을 이동할 수 있으며, 산업용 그리퍼와 의료 돌봄용 모듈 부속품도 추가해 한 대의 로봇으로 다양한 현장에 대응할 수 있다. 엣지봇(智元机器人·AGIBOT)은 링취(灵渠) OS 2.0 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새로 탑재된 엣지컴퓨팅 모듈을 통해 네트워크가 없는 환경에서도 스스로 판단하고 작업할 수 있으며, 광산과 석유·가스 개발 현장 등 원격 작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 엔드투엔드 VLA 접근법

로봇에라 (星动纪元·Robot Era)의 ERA-42 Pro 모델은 재질과 형태가 다른 다양한 상품을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물류창고 분류 정확도는 99.2%에 달했으며, AGV 운반차와 자동화 창고 시스템과도 연동돼 상품 분류부터 보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X 스퀘어로봇(自变量机器人·X Square Robot)의 WALL-A 3.0 은 음식 배달 과정에서 마주치는 복잡한 도로주행 환경을 학습했다. 보행자와 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스스로 피해 이동할 수 있으며, 주거단지와 오피스 빌딩 등 준개방형 공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활용 영역 확대: 산업 현장에서 민생 분야로

2026년 2분기 피지컬 AI 산업은 '산업 현장 확장, 민생 분야 진출, 첨단 영역 개척'이라는 세 가지 흐름이 동시에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대규모 도입이 본격화되며 효율 개선이 이어졌고, 돌봄, 교육, 지역사회 서비스 등 민생 분야에서는 시범 운영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도입 국면에 들어섰다. 산업 전반도 다양한 영역의 가치 창출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산업 제조는 핵심 시장으로 자리 잡았으며, 적용 분야도 첨단 제조업과 극한 작업 환경까지 확대되고 있다. 또한 공정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이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

■ 계약 규모의 잇따른 증가

즈핑팡(智平方·AI²Robotics)은 CATL 과 3년간 로봇 2,000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8억 위안을 넘어서며,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단일 계약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해당 로봇은 동력 배터리 셀 조립과 PACK 패키징 등 공정 전반에 투입될 예정이다. 유비텍(优必选·UBTECH)은 자동차 제조 현장에 1,000대 이상의 로봇을 투입했다. 주요 고객사로는 BYD(比亚迪)와 테슬라 등 주요 완성차 업체가 있으며, 적용 공정도 프레스, 용접, 최종 조립 라인까지 확대됐다.

■ 작업 효율도 큰 폭으로 개선

유비텍(优必选·UBTECH)의 운반 로봇은 자동차 부품 이송 현장에서 숙련 작업자의 55%에 달하는 생산성을 기록하며, 연내 목표치였던 50%를 조기 달성했다. 갈봇(银河通用·Galbot)의 산업용 피킹 로봇은 3C 전자제품 분류 현장에서 인력 대비 작업 효율을 80% 높였다. 24 시간 연속 가동 기준 고장률도 0.5% 이하로 낮췄다.

■ 첨단 분야로 적용 분야 확대

제제시테크(捷杰西科技)의 시추 로봇은 페트로차이나(中石油)의 신장(新疆) 유전·가스전에 투입돼 영하 30°C의 극저온 환경에서 시추 작업을 수행했다. 메카만더(梅卡曼德·Mech-Mind)의 3D 비전 픽킹 로봇은 반도체 웨이퍼 제조 공정에 도입됐으며, 0.005mm에 달하는 정밀 이송 정확도를 보였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산업 현장에서는 수주 규모와 작업 효율, 적용 범위가 모두 확대됐다. 다양한 로봇들이 동력 배터리와 자동차 제조 핵심 공정에 투입됐고, 생산성은 높아진 반면 고장률은 낮아졌다. 동시에 극한 작업 환경과 반도체 같은 고난도 분야까지 진출하며, 적용 영역도 고정밀·고난도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산업 고도화: 기대치 상회하는 국산화율 달성

2026년 2분기 피지컬 AI 산업은 공급망 협력이 한층 강화되면서 핵심 부품 국산화율이 85%를 넘어섰다. 이는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발전 지도 의견(人形机器人创新发展指导意见)>에서 제시한 80%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것이다. 생산 비용도 계속 낮아지고 있어, 얼마나 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요 기업들은 각자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업·다운스트림 분야와 협력을 넓히며 세 가지 유형의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 모델·하드웨어·활용처 연계형

갤봇(银河通用·Galbot), 스피리트 AI(千寻智能·Spirit AI) 등 모델 플랫폼 기업들은 유니트리(宇树科技·Unitree) 같은 하드웨어 업체, CATL 등 수요 기업과 협력해 모델 개발부터 하드웨어 제조, 현장 도입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 하드웨어·개발자·서비스 연계형

유비텍(优必选·UBTECH), 엣지봇(智元机器人·AGIBOT) 등 완성형 로봇 제조사는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방해 1,000 곳이 넘는 개발사를 끌어들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드웨어 판매, 앱·서비스 개발, 부가 서비스까지 연결되는 수익 구조를 만들고 있다.

■ 분야 간 기술 융합형

즈위안(智源) 연구원, 베이징 휴머노이드 혁신센터 등 연구기관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엣지컴퓨팅, 양자컴퓨팅 기업들과 협력해 10 건이 넘는 융합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자본 집중: 현장 적용 역량에서 생태계 가치로

2026년 2분기 피지컬 AI 분야 투자 자금은 업계 선두 플랫폼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IPO 추진도 빨라지고 있으며, 산업 자본의 참여 역시 늘어나면서 자본시장과 산업 현장의 결합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 생태계형 플랫폼 기업

투자자들은 범용 인공지능 대형모델 개발 역량과 생태계 구축 능력을 함께 갖춘 기업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산업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공급망 전반의 자원을 결집해 기술 개발부터 현장 적용까지 주도할 수 있다.

■ 핵심 부품 선도 기업

관절 모듈, 고정밀 센서, 고성능 연산 칩 등 핵심 부품 분야의 선도 기업들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기업은 산업 기반을 맡고 있으며, 국산화율 상승과 비용 절감이 본격화되면 산업 전체의 대량 생산과 시장 확대를 이끌 수 있다.

■ 민생 분야 솔루션 기업

돌봄, 교육, 지역사회 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분야의 솔루션 기업도 주요 투자 대상으로 꼽힌다. 이들 기업은 시장 수요와 맞닿아 있어 도입 속도가 빠르고, 수익 구조를 구축하는 능력도 뛰어나다.

과열 기대 속 현실 점검: 확산 국면에서 풀어야 할 4대 과제

피지컬 AI 산업은 2 분기 들어 기술 융합, 활용 분야 확대, 산업 고도화 등 여러 진전을 이루며 다양한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다만 산업은 아직 초기 성장 단계에 있으며, 네 가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 다양한 환경 대응력 부족

현재 피지컬 AI 로봇은 여전히 특정 작업이나 제한된 환경에 맞춰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다른 현장이나 새로운 생활 환경에 투입되면 적응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새로운 환경에 별도 학습 없이 대응하는 범용 성능 역시 아직 한계가 남아 있다.

■ 민생 분야 수익 모델 미흡

돌봄, 교육 등 생활 밀착형 분야에서는 도입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상당수 기업은 여전히 정책 보조금이나 프로젝트 단위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대규모 확산이 가능한 수익 모델도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 또한 장비 유지비 부담이 크고, 사후 서비스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 분야 간 기술 융합의 높은 장벽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양자컴퓨팅 등 첨단 기술과 피지컬 AI 의 결합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기술 표준이 제각각이고 데이터 연계도 쉽지 않으며, 협업 효율도 높지 않다. 이 때문에 분야 간 기술 융합은 개발 비용이 많이 들고 상용화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다는 지적이 나온다.

■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기술 장벽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첨단 핵심 부품과 범용 인공지능 대형모델 분야에서 여전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동시에 일부 국가가 AI 와 로봇 분야에 대한 기술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피지컬 AI 산업의 해외 진출은 기술 장벽과 무역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

■ 대응 방향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信部) 관계자는 2026년 2분기 업계 경쟁의 중심이 단일 기술 경쟁에서 종합 생태계 경쟁으로, 내수 중심 경쟁에서 글로벌 협력 경쟁으로 옮겨갔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 현황과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체화지능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려면 아래 네 가지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다양한 환경 대응 기술 고도화: 범용 대형모델과 멀티모달 인지 기술을 개발해 다양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키우고, 테스트 플랫폼과 데이터 축적을 통해 모델 성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민생 분야 수익 구조 확립: 돌봄, 교육 등 생활 밀착형 분야를 중심으로 가볍고 가격 부담이 낮은 솔루션을 확대하고, '장비·서비스·운영·데이터'를 아우르는 전 주기 사업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서비스 체계도 함께 정비해 사용자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분야 간 협력 생태계 강화: 관련 기술 간 표준 연계를 추진하고, 융합 혁신 플랫폼 구축과 정책 지원을 확대해 협업 기반을 넓혀야 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일대일로'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 기반을 넓히는 한편, 글로벌 공동 연구개발과 글로벌 표준 제정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향후 전망: 생태계 주도 기업이 시장 판도 결정

중국정보통신원(中国信通院), IDC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26년 2분기 중국 체화지능 산업 규모는 500억 위안을 넘어, 전년 대비 150% 성장한 것으로 추산된다. 2030년에는 5,000억 위안, 2035년에는 1조 위안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글로벌 피지컬 AI 산업의 핵심 시장이자 혁신 거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2026년 피지컬 AI 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를 만들어 내는 단계에 들어섰다. 경쟁의 중심도 다양한 환경 대응 기술, 비즈니스 수익 모델 구축, 생태계 조성, 글로벌 통합 역량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태계를 주도하는 기업이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부품 국산화율의 빠른 상승, 생활 밀착형 분야의 본격 확산,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의 융합 적용, 산업 간 협력 강화 등은 피지컬 AI 산업이 이제 특정 분야에 머물던 성장 단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영역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현장 수요에 맞는 활용처를 넓히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서는 기업이 앞으로 1조 단위의 거대한 시장에서 주도권을 쥘 것으로 보인다.

표. 2026년 2분기 피지컬 AI 기업 주요 동향

기업	주요 성과	기술 방향	핵심 적용 분야
스피리트 AI (千寻智能·Spirit AI)	30억 위안 규모 C 라운드 투자 유치, 기업가치 200억 위안 평가, Spirit v2.0 공개	범용 대형모델	동력 배터리 제조, 스마트 물류, 교육
주지동력 (逐际动力·LimX Dynamics)	3억 달러 규모 C 라운드 투자 유치, 우주 작업용 로봇 우주정거장 테스트 완료	로봇 본체 하드웨어 + 소뇌형 기초모델	설비 점검, 특수 작업, 항공우주
유니트리 (宇树科技·Unitree)	IPO 상장 예비심사 통과, 과학혁신판 상장 신청, Unitree R2 공개	운동 제어 + 하드웨어 통합	소비자용, 산업용, 돌봄 서비스
갈봇 (银河通用·Galbot)	클라우드·엣지·단말기 통합 연산 플랫폼 구축, 커뮤니티 서비스 로봇 100개 단지 투입	시뮬레이션 데이터 기반 VLA 모델	산업용 집품, 무인 매장, 커뮤니티 서비스
즈핑팡 (智平方·AI² Robotics)	CATL로부터 8억 위안 규모 수주, 단일 계약 최대 기록	GOVLA 전신 통합 범용 모델	반도체, 자동차 제조, 동력 배터리
로봇에라 (星动纪元·Robot Era)	ERA-42Pro 공개, 물류 분류 정확도 99.2% 달성	엔드투엔드 VLA	물류 분류, 스마트 창고
네오릭스 (松延动力·Noetix Robotics)	15억 위안 규모 B 라운드 투자 유치, 노인돌봄형 로봇 '샤오부미(小布米)' 판매 1만 대 돌파	경량 하드웨어+음성 대화	소비자용, 돌봄 서비스
쥐이더로보틱스 (卓益得机器人·DroidUp)	돌봄 로봇 20대 요양기관 도입	생체모사 하드웨어+ 돌봄 서비스	돌봄 서비스, 생활 밀착형 서비스

참고자료

- ◆ 피지컬 AI 산업 연맹(具身智能产业联盟). 피지컬 AI 2026년 2Q: 활용 영역 확대와 기술 융합 가속화, 산업 현장을 넘어 전 영역 가치 창출 시대로
https://mp.weixin.qq.com/s/5vomcHXu0I3JHgK80_N-pg

[산업분석] 6분 충전으로 1,500km 주행, CATL의 6대 혁신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한계 돌파

2026년 4월 21일, CATL(宁德时代)은 베이징에서 '슈퍼 테크 데이'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3세대 선싱(神行) 초고속 충전 배터리, 3세대 치린(麒麟) 배터리 치린(麒麟) 응축 배터리, 2세대 샤오야오(骁遥) 슈퍼 EREV·하이브리드 배터리, 나트륨 신형 배터리, 초고속 충전·배터리 교환을 결합한 충전 인프라 계획 등 6대 혁신 기술을 공개했다. 다양한 모빌리티 수요와 사용자 환경에 맞춰 보다 다변화되고 효율적인 친환경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발표회에서 우카이(吴凯) 중국공정원 원사이자 CATL 수석 과학자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를 더 크게 높이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선 만큼, 앞으로는 초고속 충전을 중심으로 성능과 비용의 균형을 맞추는 전략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삼원계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를 바탕으로 여전히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경쟁의 핵심 분야이며,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극한 기후 후 환경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배터리 산업이 다양한 소재 체계가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세대 선싱(神行) 초고속 충전 배터리, 빠른 충전·긴 수명 동시에 실현

배터리의 전기화학적 특성상 충전 속도를 높이면서도 배터리 수명을 유지하려면, 충전 전류를 세밀하게 조절하는 것보다 발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레니우스 법칙에 따르면 배터리 온도가 10°C 오를 때마다 내부의 부반응 속도는 약 2배 빨라져 수명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친다.

3세대 선싱 초고속 충전 배터리는 열 발생 감소, 냉각 효율 강화, 제어 정확도 향상의 세 가지 기술을 적용해, 완전 충전 1,000회를 거친 뒤에도 배터리 용량 유지율이 90% 이상에 달한다.

최신 버전의 3세대 선싱 배터리는 실사용 기준 10C 급, 순간 최대 15C 수준의 초고속 충전 성능을 구현했다. 배터리 잔량(SOC) 10%에서 35%까지는 1분, 10%에서 80%까지는 3분 44초, 10%에서 98%까지는 6분 27초가 소요된다. 영하 30°C의 혹한 환경에서도 SOC 20%에서 98%까지 약 9분 만에 충전할 수 있다. 회사 측은 배터리 자체 가열 기술과 충전·교환 통합 인프라를 결합해 저온 환경에서도 충전기 종류에 상관 없이, 충전과 배터리 교체를 모두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3세대 치린(麒麟) 배터리, 더 가볍고, 더 강하고, 더 프리미엄하게

3세대 치린 배터리는 셀 기준 에너지 밀도 280Wh/kg을 구현해 1회 충전 주행거리 1,000km와 10C 급 초고속 충전을 동시에 지원한다. 배터리 팩 무게는 625kg에 불과하며, 시중 동급 1,000km 주행 리튬인산철(LFP) 차량 대비 무게를 255kg 줄였고, 공간도 112L 절감했다.



이처럼 우수한 경량화 지표와 함께 차량 전반의 성능이 크게 개선되었다.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는 100km당 전력소비량이 6% 이상 낮아져, 100km당 약 0.78kWh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 주행 성능과 안전성도 함께 개선됐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약 0.6 초 단축됐고, 추월 시 차량이 나란히 주행하는 위험 노출 시간은 12% 감소했다. 무스 테스트 통과 속도는 8% 높아졌으며, 차체 롤링 각도는 6.5% 감소했다. 긴급 회피 성능은 15~25% 향상됐고, 제동거리도 100km/h 기준 약 1.44m 짧아졌다. 내구성 측면에서는 새시 핵심 부품 수명이 40% 늘었고, 타이어 수명도 30% 연장됐다. 절감된 112L의 공간은 실내 헤드룸을 최소 18mm 확대하거나, 차량 전체 공기저항 설계를 최적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출력 성능도 크게 향상됐다. 3세대 치린 배터리는 순간 출력 3MW를 구현했다. 이는 2025년 닐르부르크링 서킷에 투입된 2세대 치린 레이싱 배터리의 최고 출력 1,330kW 대비 두 배 이상 향상된 수준이다.

안전성도 한층 강화됐다. 기존 열폭주 방지(NP) 기술을 고도화해 '열·전기 분리' 기술을 새롭게 도입했다. 각 배터리 셀마다 독립된 밀폐형 배기 통로를 설치해, 극한 조건에서 셀 열폭주가 발생하더라도 고온 가스를 전용 통로로 빠르게 배출하도록 했다. 열폭주가 전기 계통 이상으로 확산되는 경로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단순한 열 차단 수준을 넘어, 구조적 격리 단계로 안전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치린(麒麟) 응축 배터리, 항공기 수준의 응축 기술 승용차에 첫 적용

CATL의 치린 응축 배터리는 항공기 수준의 응축 기술을 승용차용 동력 배터리에 처음 적용한 제품이다. 셀 에너지 밀도는 350Wh/kg으로, 양산 배터리 기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 기술은 이미 4톤급 상용 항공기를 통해 첫 비행 검증을 마쳤으며, 앞으로 8톤 이상급 상용 항공기에서도 추가 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치린 응축 배터리의 체적 에너지 밀도는 760Wh/L에 달한다. 일반적인 차량용 배터리 팩 설계를 기준으로, 세단은 최대 1,500km, 대형 3열 6인승 SUV는 1,0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배터리 팩 무게는 650kg 이하로 맞췄다. 1,500km 주행거리는 단순히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넘어서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의 전기차가 과거의 전기차를 전면적으로 앞서는 전환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베이징에서 난징까지 약 1,000km가 넘는 거리도, 고속 주행으로 인해 실주행 가능 거리가 30% 줄어들더라도 중간 충전 없이 한 번에 도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기존 액체 전해질 대신 응축 전해질을 적용해, 누액 가능성을 줄이고 누액으로 인한 안전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2 세대 샤오야오(骁遥) 슈퍼 EREV·하이브리드 배터리, 전기주행 600km 시대 진입

2 세대 샤오야오는 EREV·하이브리드 차량의 순수 전기 주행거리를 600km까지 끌어올렸다. 모든 모델에 10C 초고속 충전 기능을 표준 사양으로 탑재했고, 업계 최초로 '슈퍼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을 도입했다. 또한 리튬인산철(LFP), 슈퍼 하이브리드, 삼원계 배터리의 세 가지 기술 체계를 통해, 대중형 모델부터 프리미엄급 모델까지 다양한 EREV·하이브리드 수요를 폭넓게 아우른다.



리튬인산철(LFP) 버전은 순수 전기 주행거리 500km를 구현해, 일상 출퇴근 기준으로 '주 1회 충전' 수준의 사용이 가능하다. 새로운 슈퍼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LFP 올리빈(Olivine) 결정 구조를 기반으로, 삼원계와 LFP 소재를 분말 입자 단계에서 균일하게 혼합한 방식이다. 에너지 밀도는 230Wh/kg 으로, 동일한 배터리 팩 무게 기준, 단일 LFP 배터리 대비 주행거리가 15% 이상 늘어났다. 삼원계 버전은 순수 전기 주행거리 600km 를 넘어섰고, 차량 총 주행거리는 2,000km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도심 전기차와 장거리 하이브리드 차량의 장점을 한 차에 담아냈다는 평가다.

출력 성능도 강화됐다. 완전 충전 상태에서 순간 출력 1.5MW 를 낼 수 있으며, 배터리 잔량(SOC) 20% 수준에서도 1.2MW 출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이를 통해 EREV·차량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던 저전력 상태에서의 출력 저하 문제를 해결했다. 오프로드 주행을 예로 들어보면, 사막의 깊게 패인 요철 구간을 빠져나오려면 350kW 이상의 순간 출력이 필요하다. 샤오야오의 출력은 이보다 3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배터리 잔량이 20%는 물론 10% 이하로 낮아진 상황에서도 가속 페달만 밟으면 손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 배터리 잔량과 관계없이 일관된 고출력 주행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전성도 강화됐다. 방탄 등급의 하부 코팅을 적용해 1,500 줄(J)의 충격 에너지를 견딜 수 있다. 이는 중국 국가표준(150J)의 10 배로, 표준 소총 탄환의 충격력에 맞먹는 수준이다. 방수 성능도 향상됐다. 수심 2m 에서 200 시간 이상 침수돼도 성능이 저하되지 않으며, 폭우 속 침수 구간 주행이나 오프로드 도하 주행 등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출력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나트륨신형(钠新)' 배터리, 나트륨이온 배터리 개발을 넘어 상용화 단계로

CATL 은 올해 나트륨이온 배터리 양산의 4 대 핵심 과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수분 제어, 하드카본 가스 발생, 알루미늄 포일 접착 문제, 자생 음극 기술의 대규모 양산 등에서 성과를 냈으며, 이 과정에서 100 여 건 이상의 엔지니어링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했다는 설명이다.

나트륨신형 배터리는 2026 년 말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충전·교환 통합 인프라, 최적의 에너지 보급 모델 제시

CATL 은 앞으로의 충전 인프라 구도가 가정용 충전, 공공 충전, 배터리 교환의 3 축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초고속 충전과 배터리 교환을 결합한 모델'이 가장 효율적인 형태라는 설명이다.



회사는 승용차용 '초콜릿(巧克力)' 배터리 교환소와 대형 트럭용 '치지(骐驎)' 배터리 교환소 전 모델에 선싱(神行) 초고속 충전기를 표준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배터리 충전과 교환을 모두 지원하는 교환·충전 연동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충전·교환 통합 스테이션은 변전 설비와 충전 모듈을 공동 활용해 에너지 변환 단계를 줄였으며, 이에 따라 종합 전력 손실률은 기존 저장형 충전소 대비 13%p 이상 낮아졌다. 또한 긴급 상황에서는 교환소 내 배터리를 활용해 충전기에 역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설비 활용률은 85% 이상에

달한다. 충전 공간당 서비스 처리 능력은 일반 저장형 충전소의 3 배 수준이며, 초고속 충전 설비의 고정 투자비는 일반 저장형 충전소의 5 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배터리 제품 부문에서는 '초콜릿(巧克力)' 교환형 26 호 배터리팩을 공개했다. 800V 고전압 아키텍처를 적용했으며, 1 차로 75kWh 버전을 출시하고 이후 더 큰 용량 제품도 추가해, B 급부터 C 급 800V 차량까지 폭넓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초콜릿 배터리 교환 시스템은 A0급부터 C 급까지 모든 차량급을 아우르게 된다.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2026 년 말까지 충전·교환 통합 스테이션 4,000 곳을 구축해 약 190 개 도시와 중국 전역의 종단축 12 개, 횡단축 11 개 고속도로망을 커버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완성차 업체 및 에너지 기업들과 함께 '충전·교환 공유 네트워크'를 공동 조성할 계획이다. 기술 공유와 상호 연계, 공동 투자·건설을 원칙으로 한다. 1차 협력사로는 창안(长安), 치루이(奇瑞), 광치(广汽), 사이리스(赛力斯), 상하이 GM 우링(五菱), 베이치(北汽) 등이 참여하며, 2028 년 말까지 10 만 곳 이상의 공유형 에너지 보급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전 화학계 소재를 아우르는 5 종의 배터리 제품군부터 충전·교환 통합 네트워크 구축까지, CATL 은 이번 슈퍼 테크 데이에서 배터리 제품과 에너지 보급 인프라를 아우르는 전 밸류체인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를 개별 기술 경쟁에서 전 주행 환경 대응 체계로 확장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모빌리티 수요에 최적의 해법을 제공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참고자료

- ◆ 신라망(新浪网). 6분 충전으로 1,500km 주행, CATL의 6대 혁신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한계 돌파
http://k.sina.com.cn/article_2061924233_7ae6778900101c0lk.html

[기업분석] 피지컬 AI 로봇 관련 기업-메크마인드(梅卡曼德)



기업 개요

메크마인드 (Mech-Mind, 梅卡曼德) 로보틱스는 칭화대 출신 해외 유학파 창업진이 2016 년 설립한 기업으로, 피지컬 AI 로봇의 산업 현장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첨단 AI 와 센서 기술을 바탕으로 고성능 3D 비전 시스템과 AI 제어 플랫폼, 다관절 로봇핸드 등을 자체 개발했다. 이들 기술은 높은 범용성과 표준화 수준을 갖춰 다양한 형태의 로봇에 적용할 수 있으며, 로봇의 정밀한 인식과 자율 판단, 효율적인 작업 수행을 지원한다. 현재 산업 현장과 서비스 분야 전반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100+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고객

24,000+ 카메라
전 세계 설치·운영

4000억
총 투자 유치 규모

40+
국가 및 지역에서 사업 전개

주요 제품

명칭	사진	소개
Mech-Eye 산업용 3D 카메라		자체 개발한 고성능 3D 카메라는 높은 정밀도와 조명 변화에 강한 성능, 뛰어난 영상 품질을 갖췄다. 원거리, 중거리, 근거리 등 다양한 거리 조건의 작업 환경에 적용할 수 있다.
Mech-Eye 3D 라인 레이저 윤곽 측정기		4K 초고해상도와 15kHz 초고속 스캔 성능을 갖춰, 3C, 리튬배터리, 자동차, 태양광 등 분야의 고정밀 검사 측정 작업에 적합하다.
Mech-Vision 머신비전 소프트웨어		시각화 인터페이스를 통해 별도의 코딩 없이도 부품 투입·배출, 디팔레타이징·팔레타이징, 정밀 조립 등 지능형 로봇 작업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다.
Mech-Viz 로봇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직관적인 화면 기반 인터페이스를 통해 코딩 없이도 프로그래밍할 수 있으며, 간편한 시뮬레이션 기능도 지원한다. 경로 계획, 충돌 감지, 그리퍼 동작 계획 등 지능형 알고리즘을 내장해 글로벌 주요 로봇 브랜드와도 호환된다.

Mech-DLK 딥러닝 소프트웨어		다양한 딥러닝 알고리즘을 내장해 인식, 위치 파악, 품질 검사 등 복합 작업을 처리할 수 있으며, 3C, 리튬배터리, 자동차, 물류, 가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Mech-MSR 3D 측정 검사 소프트웨어		자체 개발한 원스톱 AI 품질검사 플랫폼이다. 코딩이 필요 없는 시각화 환경과 간편한 디버깅 기능을 갖춰, 간단한 조작만으로 다양한 2D·3D 품질검사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 자동차, 3C, 리튬배터리 등 분야의 다양한 검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체화지능 통합 로봇 플랫폼		메크마인드가 자체 개발한 체화지능 '인식·판단·조작' 통합 플랫폼으로, Mech-GPT 멀티모달 LLM, Mech-Eye 고정밀 3D 카메라, Mech-Hand 다관절 로봇핸드 등 핵심 기술이 집약돼 있다. 우수한 이해, 인식, 조작 능력과 범용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로봇과 여러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솔루션

■ 지능형 휴머노이드 로봇 리테일 솔루션

메크마인드의 지능형 휴머노이드 로봇 리테일 솔루션은 피지컬 AI 기반 '인식·판단·조작' 기술과 휴머노이드 로봇을 결합한 시스템이다. 다양한 실제 상품을 인식하고 정밀하게 다룰 수 있어 주문 처리부터 상품 픽업, 전달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했다. 높은 범용성과 환경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대형마트, 유통·리테일, 연구기관, 전사·체험 공간 등 다양한 서비스 현장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 AI 비전 기반 부품 투입·배출

AI+3D 비전 로봇이 자재함 안에 뒤섞여 있거나 서로 붙어 있는 부품을 하나씩 집어 옮기고, 다음 가공 공정으로 자동 이송한다. 자동차, 건설기계, 철강 등 현장의 부품 투입·배출 작업에 활용할 수 있다.

■ AI 비전 기반 디팔레타이징·팔레타이징

AI+3D 비전 로봇이 박스, 마대, 회수용 컨테이너 등 각종 물류 화물의 운반과 적재·하역 작업을 수행한다. 식품, 생활용품, 대형마트, 택배, 제약, 화학, 담배 등 분야에서 물류 회전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 AI 비전 기반 정밀 조립

AI+3D 비전 로봇이 흩어져 놓여 있는 부품을 인식해 집어 올린 뒤, 지정된 위치에 맞춰 조립한다. 자체 개발한 3D 비전 시스템을 통해 조립 위치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부품 변형 등

실제 생산 현장의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다.

■ AI 비전 기반 강판 가공

AI+3D 비전과 로봇을 결합해 강판 절단, 소재 분리, 평탄화, 판재 배치, 베벨 가공, 용접 등 건설기계용 금속 판재의 다양한 가공 공정을 수행한다.

■ AI 비전 기반 상품 피킹

AI+3D 비전 로봇이 주문 내용에 따라 자재함에서 필요한 상품을 하나씩 꺼내 지정된 위치로 분류한다. 물류센터와 전자상거래 분야의 상품 피킹 작업에 활용할 수 있다.

■ AI 비전 기반 택배 자동 공급

AI+3D 비전 로봇이 슬라이드 레일 위에 뒤섞여 있는 택배 물품(물류 박스, 비닐 포장, 플라스틱 봉투, 완충 봉투, 일반 봉투 등 포장물 처리 가능)을 하나씩 집어 지정된 물류 장비로 옮긴다.

■ AI 검사·측정

메크마인드는 고성능 3D 라인 레이저 윤곽 측정기와 직관적인 측정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생산라인에서 고속, 전 구간, 고정밀 측정을 구현했다. 이를 통해 3C, 배터리, 자동차, 태양광 등 산업 고객의 품질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 AI 인라인 측정

메크마인드의 고정밀 AI+3D 인라인 비전 측정 시스템은 측정 설비를 생산라인에 직접 연계해 운영할 수 있다. 자동차 부품과 차체 서브 어셈블리 등을 생산 과정에서 100% 전수 검사하고, 공정 개선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 등 산업 고객이 높은 품질 기준에 맞춰 효율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AI 비전 기반 용접 위치 정렬

메크마인드는 용접 자재 투입, 1 차 위치 정렬, 정밀 위치 정렬 등 다양한 용접 공정에 맞는 비전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각도와 작업 환경에서도 용접 자재 공급과 위치 정렬이 가능해 용접 품질과 정밀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참고자료

- ◆ 메크마인드 웹사이트(梅卡曼德官网)
www.mech-mind.com.cn

[지역분석] 랴오닝성 번시시 하이테크산업구

개요

■ 허가 일자

랴오닝성 번시시 하이테크산업구는 2012년 설립

■ 주요 산업

바이오헬스

■ 주요 지표

구분	2022년	2023년	성장률
순이익	0.75억 위안	3.78억 위안	400.88%↑
영업수익	67.46억 위안	94.02억 위안	39.37%↑
공업총생산액	52.84억 위안	80.28억 위안	51.95%↑
총자산	114.27억 위안	140.18억 위안	22.67%↑

번시(本溪) 하이테크산업구는 1993년 성정부 승인을 거쳐 성급 경제기술개발구로 설립됐으며, 이후 2012년 국무원 승인을 받아 지금의 국가급 하이테크산업구로 지정됐다. 현재는 중국 내 동종 산업단지 가운데 유일하게 7개 국가급 첨단 브랜드를 동시에 보유한 의약산업 집적구로 평가된다.



현재 번시(本溪) 하이테크산업구에는 바이오헬스 및 관련 기업 195개사가 입주해 있다. 이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 공업기업은 41개사이며, 국가급 하이테크기업 49개사,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86개사, 초기 성장기업(雏鹰企业) 22개사, 고성장기업(瞪羚企业) 9개사를 보유하고 있다. 등록·이전된 의약품·의료기기 품목은 817개에 달한다. 선양(沈阳) 약학대학, 랴오닝(辽宁) 중의약대학 번시캠퍼스, 랴오닝 과학기술학원 등 의약 관련 대학 및 캠퍼스 6곳도 하이테크산업구에 입주해 있다. 실험동물, 안전

성 평가·검사 분야에서는 국가급 공정기술연구센터 1곳, 성급 이상 기술이전 시범기관 3곳, 전문 기술 연구개발 플랫폼 16곳, 공공서비스 플랫폼 8곳이 구축되어 있다. 또한 국가급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 1곳, 성급 특화형 창업지원 공간 4곳, 대학 과학기술원 1곳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창업지원 시설 면적은 39만 5,400㎡에 이른다. 현재 창업 육성 기업은 약 120개사다. 의약 및 관련 산업 종사자는 약 1만 명에 달하며, 국무원 특별수당 수혜자 4명, 성급 전문 인재 26명, 시 우수 전문가 3명, 지역 핵심 인재(山城英才) 6명 등 핵심 인재를 확보하고 있다. 이 밖에 전문가 워크스테이션 1곳과 박사후 연구기지 2곳이 운영되고 있다.

KIC 뉴스



2026 년 난징 한-중 헬스케어 & 바이오환경 산업기술 협력 컨퍼런스 계획안	26
2026 WAIC 세계인공지능대회 모집 공고	29
중국 과학기술 분야 행사 정보	30



2026년 난징 한-중 헬스케어 & 바이오환경 산업기술 협력 컨퍼런스 모집 공고

추진 배경

-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는 한-중 과학기술 혁신 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 혁신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
 - 특히 KIC 중국은 5 대 도시군 전략을 중심으로 중국 주요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양국 간 기술 교류, 산업 협력 및 창업 생태계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난징시 및 장닝경제기술개발구와도 과학기술 협력, 기업 교류, 산업 연계 측면에서 긍정적인 협력 기반을 축적
 - 난징은 장강삼각주 핵심 도시로서 바이오의약, 에너지 절감·환경보호, 인공지능 등 전략적 신흥 산업 분야에서 탄탄한 산업 기반과 정책적 경쟁력을 보유
 - 한편, 2026 년 초 한-중 정상 간 회담 및 다수의 국가급 협력 합의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산업 및 기술 협력은 새로운 고도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특히 헬스케어 및 바이오·환경 분야에서 협력 수요가 빠르게 확대
 -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양국의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기술 협력과 산업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본 행사를 기획

행사 목적

- (국가간 협력 플랫폼 구축) 한·중 간 '관(기관)·산(산업)·학(대학)·연(연구기관)·금(금융)·상(상업무역)'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술·산업·자본 간 연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창출
- (양국 기술이전 성과 도출) 헬스케어, 바이오의약, 친환경 및 인공지능 융합 분야에서 협력 프로젝트 발굴 및 매칭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성과(협약 체결, 프로젝트 추진 등)를 도출하며, 양국 기업 및 연구기관 간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개발 협력을 촉진하여 혁신 기술의 사업화 및 산업화를 가속화
- (지속 가능한 협력 메커니즘 구축)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중 간 지속 가능한 협력 메커니즘 구축을 통해 중장기적 산업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양국 간 공동 혁신 생태계 조성을 촉진

행사 개요

- 일시: 2026년 6월 15일(월) ~ 6월 18일(목) (3박 4일)
- 장소: 중국 난징시 강녕구 LakeHome 컨벤션 호텔
- 참여기관
 - 후원기관
(한)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
 - (중) 난징시 강녕구 과학기술국
 - 주최/주관기관
(중) 난징시 강녕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난징시 인재그룹, 강녕 경제기술개발구 투자촉진국
 - 협력기관
(중) 난징 린옌 과학기술유한공사

전체일정: 6월 15일(월)~6월 18일(목) (약 300명 규모)

일자	시간	세션	주요 내용
6/15(금)	오후	외빈 도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착 및 호텔 체크인 • 부스 설치 • 환영 만찬
6/16(화)	오전	개막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기관 관계자 인사말 • 정책 발표 및 산업 단지 소개 • 협력 MOU 및 프로젝트 협약 • 해외현지법인 사업자 등록증 교부 • 한중 OPC 혁신 기지 개소식 • 한중 기술 협력 연맹 창단식 • 기조강연 (한국기업 1, 한국대학 1, 중국대학 1)
	오후	산업기술포럼 기술전시/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스케어 & 바이오의약 기술, 환경 & 농업 기술, 인공지능(AI) 융합 응용 기술 포럼 • 우수 기업 프로젝트 IR로드쇼 • 1:1 BIZ 매칭 상담
6/17(수)	오전	폐막식 시상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MOU 집중 체결식(10건 이상) • 우수 프로젝트 시상식 • 성과 발표 및 협력 계획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발표 - 한·중 OPC 산업 혁신 기지 운영 계획 발표 - 난징시 인재 정책 발표 - 한·중 협력 모델 계획 발표
	오후	기업 시찰	산업단지, 대학교, 기업 방문
6/18(목)		오전	난징 - 서울

핵심 산업 분야

- 헬스케어 & 바이오의약: 혁신신약, 한의약, 화장품, 의료기기 등
- 환경 & 농업기술: 바이오환경, 한약재 재배, 식물보호, 농산물 등
- 인공지능(AI): AI+헬스케어, AI+바이오의약, AI+환경, AI+농업


지원 사항

- 행사 기간(6월 15일~18일, 3박 4일) 동안 숙박(1인 1실), 식사(3식) 및 교통 (※기업당 2인 한정)
- 기업 부스 및 백월 제공, 1:1 비즈니스 매칭 및 통역 등 현장 지원
- 항공권 비용은 자기부담

접수 안내


- 최종 최대 15개 기업 모집(선착순 모집)
- 문의 및 접수처: 4317ys@naver.com

2026 WAIC 세계인공지능대회 모집 공고



WAIC

세계인공지능대회



‘한국 시 관’ 참가기업 모집

[모집개요] >>>>>>>>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글로벌협력프로그램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국내 유망 피지컬 시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중국·아시아 시장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WAIC)’ 내 ‘한국 시 관’을 지원합니다. 글로벌 시장 확장을 목표로 하는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대회개요

- 규모: 전세계 1,000여 개 기업 참가, 40만㎡ 이상의 전시 면적
- 기간: 2026. 7월 중순 (예정)
- 장소: 중국 상하이 국가컨벤션센터(NECC)

한국시관 운영 안내

- 규모: 총 8개 부스 패키지 (기업당 6.75㎡)
- 지원 내용:
 - 1) 한국시관 부스 임차 및 장치비 전액 지원 (기업당 382만 원)
 - 2) 현지 전시 운영 및 관리 비용 전액 지원
- ※ 숙박 및 항공권 비용은 자부담

모집안내


- 모집 대상: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유망 AI 스타트업 및 중견기업
- 접수 기간: 2026년 4월 29일(수) ~ 2026년 5월 6일(수) 18:00까지
- 접수 방법: 하단 QR코드 접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선정 절차 :
 - 1차: 서류 심사 (신청 기업의 적합성 및 시장성 평가)
 - 2차: 발표 심사 (기술 경쟁력 및 중국 시장 진출 의지 평가)
- 최종 발표: 2026년 5월 11일(월)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문의처] <<<<<<<<

웹페이지 : www.kicchina.org

이메일 : jiangwen@kicchina.org

연락처 : +82 070 4084 1234/ +86 10 6780 8840



(파일 다운로드)

중국 과학기술 분야 행사 정보

명칭	기간	장소	분야
제 41 회 중국자동화협회 청년과학자연례대회 (YAC2026)	2026.05.08-2026.05.10	창사	인공지능
아시아 의료 및 보건 정상 포럼	2026.05.11-2026.05.12	홍콩	의료건강
2026 년 제 6 회 국제 정보 기술 및 클라우드 컴퓨팅 컨퍼런스(ITCC2026)	2026.05.22	광저우	정보 기술
2026 년 제 7 회 국제 무선 통신 및 빅데이터 컨퍼런스(CWCBD2026)	2026.05.22	광저우	정보 기술
2026 년 제 7 회 IEEE 국제 컴퓨팅, 네트워킹 및 사물 인터넷 컨퍼런스(CNIOT 2026)	2026.05.22	광저우	정보 기술
InnoTech 2026: 혁신 및 기술 경영 컨퍼런스	2026.05.22-2026.05.25	베이징	인공지능
2026 년 (제 4 회) 국제 자동차 신소재 컨퍼런스(ICNMAI2026)	2026.05.27-2026.05.28	안후이	자동차
제 6 회 중국-해외 광산업 공급망 발전 포럼	2026.06.10	베이징	에너지
2026 년 무인 항공기(UAV) 응용 및 제어 국제 컨퍼런스	2026.06.25-2026.06.27	베이징	인공지능
2026 중국 스마트 에너지 컨퍼런스 및 전시회	2026.7.09-2026.07.11	청두	에너지
2026 년 제 11 회 국제 신호 및 영상 처리 학회(ICSIP2026)	2026.7.17-2026.07.19	창저우	정보 기술
2026 년 인공지능 및 정밀의료 국제 심포지엄 (AIPHC)	2026.7.17-2026.07.19	청두	인공지능
제 10 회 국제 원격탐사 기술 및 응용 컨퍼런스 (ICRSTA)	2026.7.17-2026.07.19	청두	정보 기술
제 6 회 국제 의약화학 및 신약 개발 심포지엄 (MCDD)	2026.7.17-2026.07.19	청두	의료건강



중국 창업



info@kicchina.org로 구독 신청하시면
매주 중국의 다양한 창업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와 위챗 공식계정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위챗 공식계정



글로벌혁신센터 (KIC 중국)